꽃비 내리고 연꽃 솟아오르네!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탄생하실 때 두루 일곱 걸음을 걸으시니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올랐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며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라 하셨도다.

최초 설법인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며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설하시고 본래 부처로서의 삶을 권장하셨도다.

우리 모두 이러한 존엄성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을 극락처럼 만들 수 있으니 각자에게 본래 구족한 불성(佛性)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법장비구가 극락세계를 만들었듯이 각자의 불국토를 만들어 내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는 일에 힘쓰는 이는 지혜로운 불자라야 할 수 있도다.

각자의 안목과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부처님이 권한 행(行)을 하지 않았으며 '나'라는 한계와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일이니 이러한 조건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도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행하는 일마다 무진법문이 되도다. 새소리 바람소리는 최고의 음악이 되고 흘러가는 구름은 아름다운 그림이 되며 들꽃 송이송이도 무진법문을 들려주는 장엄한 법석이 되도다.

어떠한 허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은 원력보살이 되겠다는 발원을 하는 불자야말로 부처님이 칭찬하시고 제천과 호법선신이 찬탄하는 참불자의 모습이요, 일찍이 룸비니에서 꽃비 내리고 연꽃이 솟아오르는 모습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셨도다.

未離兜率 已降王宮 (미리도솔 이강왕궁)
未出母胎 度人已畢 (미출모태 도인이필)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왕궁에 내려오셨고
태속에서 나오시기 전에 중생 제도를 마쳤도다.

한 송이 꽃에서 진리를 보아라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사바에 나투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축하며
바른 법 만남을 기뻐하리라.

중생의 세계는 도피처가 없으나
여래의 땅은 흔들림 없이 안온하니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
부처님이 일러주신
일승 묘법에 의지할지어다.

오온이 무상함을 바르게 알아
오직 삼보에 귀의하여,
참된 가르침에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거룩한 '발심'으로 큰마음을 낼지어다.

일색일향(一色一香)이 무비중도(無非中道)라.
저 한 송이 꽃, 흔들리는 풀 끝마다
각각 빛나는 진리를 보아라.

세상 만물 그대로가 여여한 진리이니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문,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가는 문,
늘 열려있으리라.

진언염송으로 심전정화하라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일곱 걸음 걸으시어 한 손으로 하늘을, 또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시며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
지혜와 자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셨네.

집집마다 거리마다 마음마다
섬김의 등, 소통의 등, 화합의 등을 밝히세
무명으로 인한 미혹, 집착 가득한 사바세계에
상서로운 기운 가득하도록 무진으로 서원하세.

오늘은 초파일,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오신날 두 손 모아 귀명하며 찬탄합니다. 사바세계 무여 중생 제도 위해 무수겁 세워온 원력 따라 법신에서 화신으로 나투시니 이 땅에 환희의 물결이 넘쳐납니다.

말법세상 물질문명 높아갈 때 심인정법 굳게 세워 진언염송의 묘법으로 성품 깨쳐 심전 정화하면 세사의 어지러운 환란이 다시 감동의 동력으로 승화하고 자타 없이 자성 밝아 교민(敎民) 화속(化俗) 만다라세상 현현합니다.

삼세(三世) 불은(佛恩)과 사대은혜에 보답하며 일심으로 서원하여 부처님 오심을 다 같이 봉축합시다.

자기 성품 보면 당신이 곧 부처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부처님 탄생의 상서로운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모든 존재의 존귀함이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기 성품을 본 뒤에야 참된 믿음의 씨앗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밭을 가꾸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부처입니다.

佛誕祥光照世間
萬靈尊貴起慈心
見性方知眞信種
信田耕處汝爲佛

자비·지혜로운 나 찾는 게 불자의 길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모든 국민과 더불어 찬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중생의 무명을 걷어내고 스스로 본래의 자성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참나'를 찾는 그 길이 곧 불도요, 해탈이며,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물질문명의 첨단을 걷고 있으며,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은 풍요로워졌으나 마음은 공허하고, 인간은 서로 가까워진 듯 하나 마음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기후 위기, 지진 등 자연재해, 전쟁과 극한적 경제 분쟁, 분열과 대립 등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나'라는 집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참된 나인가?'를 화두로 들어본다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면목을 보지 못한 채 고정관념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다름을 배척하며, 세상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반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길은 밖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자비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상생입니다.

국민과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단 하나,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서원입니다.

오늘 이 봉축의 날, 우리 모두 다시금 마음을 거두어 들여 참된 나, 자비로운 나, 지혜로운 나를 찾는 일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불자의 길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중생이 불법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길 발원합니다.

삼라만상 두두물물 한 생명이자 한 몸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오늘은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싸여있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미망과 탐욕에 찌든 우리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광명을 드리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열반에 드신 지 이천오백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여 정당과 이익단체 등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국가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대립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은 만 중생이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신 데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삼라만상 두두물물 비로화장세계(森羅萬象 頭頭物物 毘盧華藏世界), 온 우주는 한 생명이고 한 몸입니다. 이 진리의 요체로서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너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며, '나'라는 개개인이 모여 '국가와 국민'이라는 큰 울타리를 이룹니다. 국가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은 국가를 생각하여 바른 지혜로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우리 불자님들과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서원합니다.

불기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 주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 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